

# 윤호-창민 父 "동방신기 3人-소속사 마찰 원인은 화장품 사업때문"

입력 2009. 11. 2. 15:43 · 수정 2009. 11. 2. 15:43



[뉴스엔 김형우 기자]동방신기 유노윤호(정윤호), 최강창민(심창민) 부모님이 SM과 3인멤버들의 갈등 원인이 계약문제가 아닌 화장품 사업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3인멤버(시아준수 매키유천 영웅재중)와 소속사 간의 마찰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유노윤호의 아버지 정양현씨와 최강창민의 아버지 심동식씨는 확인서를 통해 이번 마찰이 3인 멤버가 주장해온 계약 문제보단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소속사와 갈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양현씨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두명의 멤버는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경제적,정신적 손실과 무엇보다 두명의 멤버들의 명예 실추는 어디서 보상받을지 막막한 심정일 뿐이다"며 "나는 세 명의 멤버들에게 어떤 이유이건 간에 이런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며 국가적 브랜드인 동방신기를 해체시켜야만 하는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두명의 멤버는 안중에도 없으며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글을 적었다.

이어 "금번 사건의 본질에는 어떻게든 화장품 사업과 그로 인한 금전적 욕심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내가 화장품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은 2009년 2월께였다. 세

멤버 부모들과 나와 창민군의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으며 현재 아시아 최고 스타인 동방신기가 세계적 브랜드 화장품 모델 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는데 굳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화장품 회사에 투자하고 소속사와 논의 없이 대리점을 내는 등의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소속사와 논의해 진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회사 자체 신뢰도도 떨어지고 동방신기 이미지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 아들에게도 이런 점을 설명했고 내 아들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화장품 사업엔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멤버 부모님과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SM 측에서 화장품 사업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세 멤버 부모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이에 반발만 했다. 나와 심창민 군 아버지가 나머지 부모들을 설득했으나 완강한 입장이었다"며 "세 멤버가 두 멤버 부모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SM에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동방신기는 멤버 3인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사회적 파장은 물론 두명의 멤버 권리마저도 무시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심창민군의 아버지인 심동식씨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명의 멤버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발단이자 이유는 화장품 회사등과 관련된 금전적인 이유 혹은 또 다른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다"며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느니 수익 배분이 정확하지 않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본질적 이유를 가리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심동식씨는 "단적인 예를 들면 세명의 멤버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 중국 화장품 회사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후 한명의 부모님과 통화를 했을때 '이 사업이 장차 수백억, 수천억이 될지 모르는 사업이다. 우리들이 앞으로 코스닥 회사를 우회상장해서 '동방신기가 사업을 한다'고 소문을 내 주가가 막 치솟을 때 미리 정보를 드릴테니 주식을 사세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또 "세명의 멤버들은 계약이 부당하고 정산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지만 나와 내 아들은 소속사와 처음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새로 계약을 다섯차례 갱신할때에 정확히 소속사와 협의하고 동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차례 수입 정산을 할때도 모든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고 동의해 확인해왔다. 이런 사정을 세명의 멤버들과 그 부모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진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 주장만 하는 그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김형우 cox109@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